

[230] 이인빈(李仁彬)<李朝 ?~? >

本貫은 德水, 漢範의 孫子이며, 벼슬은 防禦使를 지냈다. <新定牙州誌>

[231] 이 적(李迪)<李朝 ?~? >

牙山出身人, 丙子胡亂時 金化勝捷에 參戰하여 大功을 세운 勇將으로 後日에서 副摠管을 歷任했다. <朝鮮 輿勝覽>

[232] 이정빈(李廷彬)<李朝 ?~? >

本貫은 德水, 李忠武公의 8世孫이며, 宣傳官을 지냈다. <新定牙州誌>

[233] 이충빈(李冲彬)<李朝 ?~? >

本貫은 德水, 漢範의 孫子이며, 벼슬은 防禦使를 지냈다. <新定牙州誌>

[234] 이춘희(李春熙)<李朝 ?~? >

本貫은 德水, 義彬의 아들이며, 벼슬은 防禦使를 지냈다. <新定牙州誌>

[235] 이한응(李漢膺)<肅宗 37年(1171)~? >

李朝英祖때의 武官, 字는 士俊, 本貫은 德水 李忠武公의 會孫, 訓練大將 鳳祥의 조카이다. 英祖 28年(1752) 宣傳官을 거쳐 英祖 34年(1758) 慶尙左道兵馬節度使가 되었다. 또 英祖 44年(1768) 三道水軍統制使를 지낸후 摠戎使, 禁衛大將, 御營大將 등을 歷任했다. <英祖實錄>

[236] 이한풍(李漢豐)<英祖49年(1773)~純祖3年(1803)>

武臣, 字는 季興, 本貫은 德水, 李忠武公의 後孫이다. 蔭補로 五衛司直이 되고 英祖 37年(1761) 吉州牧使를 거쳐 英祖 44年(1768) 左副承旨가 되었다. 英祖 48年(1772) 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赴任, 이듬해 다시 承旨로 任命되었으며, 正祖 6年(1782)에 咸鏡南道兵馬節度使, 正祖 9年(1785)에 右捕盜大將 이듬해 咸鏡北道兵馬節度使를 거쳐 御營大將이 되었다가 京畿道에 猖獗한 盜賊을 掃蕩하지 못한 責任으로 良才驛에 流配후에 풀려나와 正祖 15年(1791) 平安道兵馬節度使로 갔고 이듬해 禁衛大將에 올랐으며 正祖 18年(1794) 다시 御營大將에 轉職했으나 彈劾을 받고 忠州에 流配되었다. 正祖(1796) 左捕盜大將에 起用된 후 壯勇衛大將, 訓練大將, 등을 거쳐 行護軍이 되었다. 弓術, 劍法에 特技가 있었고 글씨를 잘 썼다. <英祖實錄, 正祖實錄>

[237] 이한필(李漢弼)<李朝 ?~? >

本貫은 德水, 忠愍公의 아들이며, 承旨를 歷任하고 嘉善大夫로서 兵使를 지냈다. <新定牙州誌>

[238] 이항권(李恒權)<李朝 ?~憲宗 1년(1835)>

李朝純祖때의 武官, 字는 仲久, 本貫은 德水, 李忠武公의 8代孫이다. 純祖 8年(1808) 蔭補로 宣傳官이 되었고 이듬해 武科에 及第, 別軍職에 뽑혀 大關을 宿衛했다. 黃海道水軍節度使, 全羅道兵馬節度使를 거쳐 純祖 34年(1830) 三道水軍統制使가 되고 뒤에 벼슬이 御營中軍別將에 이르렀다. 純祖의 知遇를 받아 오랫동안 大關에 出入하여도 大關의 일을 맡은 일이 없었으며 朝廷에 나간지 30년에 사사로운 일로 남에게 干涉하지 않았고 여러번 郡邑을 다스렸으나 가는 곳마다 治績이 있었다. <淵泉集>

[239] 이해수(李蕙秀)<李朝 ?~? >

本貫은 德水, 弘重의 會孫이며, 벼슬은 五衛將을 지냈다. <新定牙州誌>

[240] 이홍저(李弘著)<李朝 ?~? >

本貫은 德水, 李忠武公의 玄孫이며, 벼슬은 營將을 지냈다. <新定牙州誌>

[241] 이 봉(李奉)<李朝 ?~? >

本貫은 德水, 栗里堯臣의 아들인데 武科에 及第하여 僉使가 되었다. 壬辰倭亂時에 李舜臣將軍의 幕下에서 始終一貫最後까지 勇戰한 猛將이었다. <朝鮮 輿勝覽>

[242] 조영규(趙英珪)< ?~太祖 4年(1395)>

高麗末 鮮初의 武臣, 初名은 評, 本貫은 新昌이다. 李成桂의 門客으로 천거에 의하여 벼슬에 올라 恭愍王 20年](1371) 判衛尉寺事로 咸州 일대에 창궐하는 倭寇를 토벌하기 위해서 李成桂 휘하에 종군하여 전공을 세웠다. 이후 여러차례 각지의 왜구로 벌전에 출전하였고, 선진세력의 武將으로서 李成桂의 세력기반을 닦는데 크게 활약하였다. 恭讓王 4年(1392) 李芳遠과 모의하여 李成桂의 問病을 마치고 돌아가는 鄭夢周를 善竹橋에서 격살하였다. 그해 鄭道傳등과 함께 李成桂를 추대하여 朝鮮開國에 공을 禮曹典書에 오르고 開國功臣二等에 책록되었으며 죽은뒤 參贊門下府事에 追贈되었다. <高麗史, 太祖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新昌)>

[243] 이 관(李莞)<宣祖 12年(1579)~仁祖 5年(1627)>

李朝 中期의 武官, 字는 悅甫, 諡號는 剛愍公, 本貫은 德水이며 李舜臣將軍의 조카이다. 20歲에 忠武公을 도와 싸움에 功을 세웠고 露深海戰에서는 忠武公이 적탄에 쓰러지자 시체를 안아 방에 누이고 전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쟁을 독려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宣祖 32年(1599) 武科에 급제하고 仁祖元年(1623) 忠淸兵馬節度使에 올라 이듬해 군사를 몰라 利川에서 李适의 난을 평정하고 義州府尹으로 나갔다. 毛文龍의 군사들이 촌가에 나가 해를 끼침이 심하므로 李莞이 분함을 참지 못하여 곤봉으로 때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계급 강등을 받았으며, 이로부터 毛文龍과의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丁卯胡亂때에 적이 의주를 포위하자 적과 싸우다가 부상하여 승산이 없으므로 [국가의 軍器는 賊에게 내줄 수 없다.] 하고 火藥庫에 불을 지르고 從弟 李蠶과 더불어 불에 뛰어 들어가 焚死하였다. 후에 兵曹判書를 追贈하고 顯忠祠에 旌門을 세워 忠義를 表하였다. <仁祖實錄, 人物考, 輿地圖書(牙山), 牙山 顯忠祠事蹟>

[244] 조제홍(趙濟弘)<李朝 ?~? >

本貫은 楊州, 牙山縣監을 지낸 濟民의 아우이다. 武科에 及第하여 宣傳官을 지냈다. <朝鮮 輿勝覽>

[245] 변정준(表廷俊)<李朝 ?~? >

李朝 仁祖때 武官, 本貫은 新昌, 집안이 원래 寒賔하였으며 어려서 武藝를 배우고, 武科에 及第, 벼슬을 萬戶, 僉使를 거쳐, 뒤에 縣監에 이르렀다. 性品이 謙遜하고 義를 위해 勇敢하였으며, 앞서 淸陰 金尙憲을 따라 배편으로 京師에 건너갔고 그때 淸陰에게 信任을 받게 되었다. 仁祖 18年(1640) 淸陰이 斥和臣으로 淸나라에 잡혀 갔다가 義州에 돌아왔으나 또 賊臣 李桂의 諫言으로 審陽에 따라가서 侍從하며 營役에 服役하여 當時 그 義가 높이 評價되었다. 淸陰의 曹孫인 農巖 金昌協은 그 史蹟을 써서 後世에 傳하였다. <國朝人物考>

[246] 홍약수(洪若水)<李朝 ?~? >

本貫은 南陽, 晩全의 6世孫이며, 벼슬은 嘉善大夫로서 兵使를 지냈다. <新定牙州誌>

[247] 홍원익(洪元益)<李朝 ?~? >

本貫은 南陽, 松谷의 5世孫이며, 벼슬은 嘉善大夫로서 兵使를 지냈다. <新定牙州誌>

[248] 홍일신(洪日新)<李朝 ?~? >

本貫은 南陽, 可臣의 后裔인데 武科에 及第하여 宣傳官이 되었다. <朝鮮 輿勝覽>